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3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액 급감

□ 금감원의 2010년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(ABS) 실적조사에 따르면 발행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.

-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6조 9,121억원으로 전년동기인 8조 5,460억원에 비해 19.1% 감소했고, 발행건수도 전년동기대비 20.6% 감소함.
-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사채 발행금액도 12.7% 감소했으며, 공모 수익증권도 34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□ 주요특징은 기업 매출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증가, 무수익여신(NPL) 자산유동화증권 감소, 해외발행 자산유동화증권 증가,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자산유동화증권 중단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.

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 및 분양대금채권을 기초로 1조 1,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기업 매출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전년동기대비 1조 1,200억원 증가함.
- 2011년 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으로 은행의 직접유동화가 감소하면서 무수익여신(NPL)*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전년동기대비 5,727억원 감소함.
-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(MBB)**을 발행하여 해외발행 자산유동화증권은 전년동기대비 3,700억원 증가함.
-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해오던 사업성 좋은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중단됨.
- 작년 3분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조 3천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증권(SLBS)을 발행했으나, 작년 8월 동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발행이 중단되어 전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함.

* NPL(Non-Performing Loan)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과 채권재조정, 법정관리·화의 등으로 이자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여신을 말함.

** MBB(Mortgage-Backed Bond)는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여 보유 중인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임.

(2010년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, 금감원, 11/11)